

건강 칼럼

‘안면윤곽술’ 얼굴형 파악하면 효과 UP

겨울방학 시즌 및 연차 소진 등의 이유에 따라 광대축소나 광대뼈 축소, 옆광대 축소 등 ‘안면윤곽술’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얼굴형을 개선해 전반적인 이미지 변신과 콤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안면윤곽술은 뼈를 제거해 얼굴을 축소하는 수술로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은 뼈가 아닌 둘러싼 피부로 이 부분까지 제거해야 효과적이다. 일단 안면윤곽술이란 광대 축소나 사각턱, 턱끝 축소 등을 통해 얼굴형 자체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다. 인공 삼입물을 보충하거나 특정 부위의 지방을 제거해 교정하는 것도 안면윤곽술 범주에 포함된다. 볼록 튀어나온 사각턱 증상은 귀뒤사각턱 부분으로 넓게 벌어져 있으면 역세고 강한 이미지



이 경 민
아이디병원 원장

에 얼굴이 커 보일 수 있어 귀뒤사각턱은 물론 MVP존(하악의 가장 두툼한 부위)까지 절단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 방법은 사각턱이 발달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사각턱, 광대 축소 등 포괄적인 부분에 축소를 위해선 하이엘광대 축소나 사각턱수술 등을 진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방법은 광대 축소와 귀뒤사각턱, 피질절골, 근육제거, 심부볼과 피하지방제거까지 한 번에 진행해서, 본인 얼굴의 가장

슬림한 얼굴라인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피하지방의 경우, 피부 아래 골고루 위치한 넓은 지방으로 뼈가 작아도 피하지방이 과하면 얼굴이 크고 통통해 보일 수 있으며, 심부볼은 볼 깊숙한 곳에 있는 지방으로 역세고 질겨 잘 빠지지 않는 부위로, 제거술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원하는 얼굴 라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대수술 이후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High-L 절골법을

통해 45도 광대를 축소하고 좌우 비대칭을 줄이는 방식의 광대재수술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절골 수술이 수직절골 방식으로 안쪽으로 이동하는 뼈양이 한정적이라면, 사선절골을 통해 더 많은 양의 뼈를 안쪽에 이동할 수 있어 드라마틱한 결과값을 기대해볼 수 있다. 추가로 덧볼이자면, 티타늄 고정핀을 이용하면 이종고정으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면윤곽술을 통해 콤플렉스 개선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CT 촬영 등 구체적인 검사를 함께하는 것을 권장한다. 윤곽술 자체가 얼굴 뼈를 조작하는 난도 높은 수술로, 신경선 손상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 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얼굴형 정밀 파악과 검증된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젤렌스키, 브뤼셀에서 마크롱 만나



에마누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회담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성폭행 피해자 지지 구호 외치는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페미니스트 단체 회원들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아비뇽의 법원 주변에서 성폭행 피해자 지젤 켈리코(72)를 지지하며 “부끄러움은 범인들 몫, 정의 구현”이라는 내용의 글을 붙인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젤의 남편 도미니크 켈리코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아내의 술잔에 진정제와 수면제 등을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익명의 남성 50여 명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젤은 “부끄러움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들 몫”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지난 수 주간 공개 재판을 이어왔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건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에 들어설 전시컨벤션센터 신축 사업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으로 전시컨벤션센터 착공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두 자치단체가 안정적인 건립을 위해 행정과 재정 지원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최근 철거를 시작했다. 2025년 내년 상반기쯤 철거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전주시는 이곳에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 그리고 오는 2028년까지 3,000여원을 들여 1만 제곱미터 면적의 대형 전시장과 2,000명 규모의 대회의장 등을 갖춘 계획이다. 최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을 대표하는 광역 기반 시설을 갖춰 대형 국제 행사와 박람회 같은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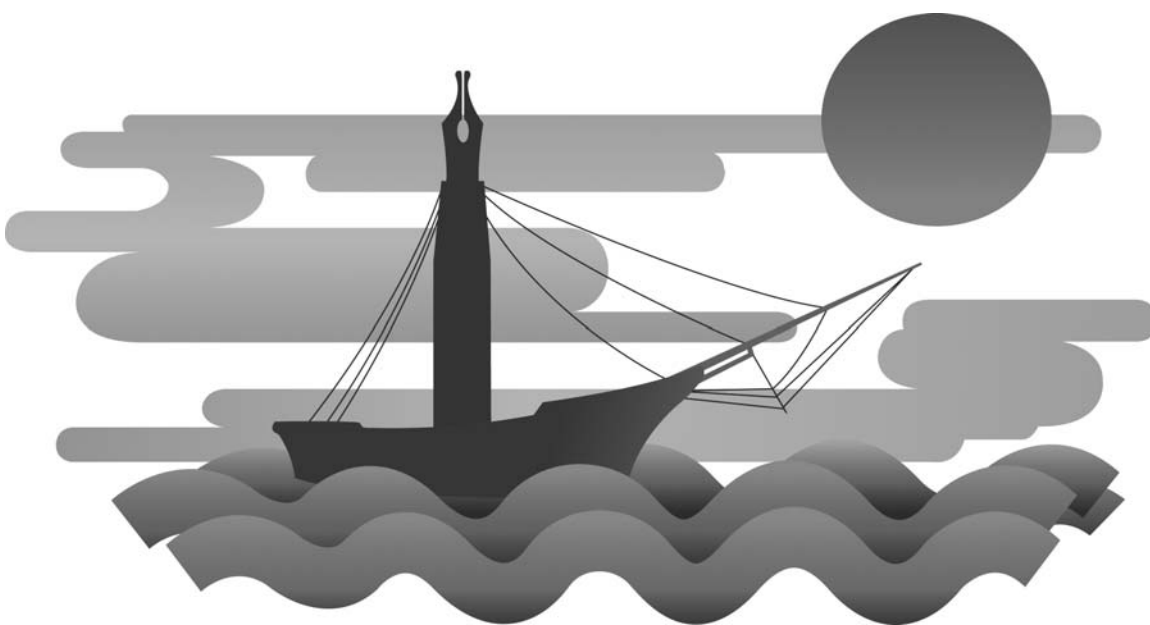
이다. 이 문제는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자치도인 모두의 염원이 담겨 있는 문제다. 때문에 전주시와 전북자치도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전주시는 먼저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앞으로 민간 투자비 2,000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건립비 1,000여원에 대한 재정 분담 방안과 센터 건립 뒤 공동 운영 방식과 행정 절차도 결정하기로 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착공 전에 충분히 전북자치도와 협력을 해서 분담 비율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이미 8년 전 착공이 무산된 바 있다. 제대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상생 노력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첫 삽을 뜨기 바란다.

어느 최고령 테니스 챔피언

1950년생으로 올해 74세인 성기춘씨는 한국 동호인 테니스의 대부로 불린다. 한국테니스진흥협회(KATA) 회장인 그는 최근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테니스 코트에서 중장년 동호인 교수들과 당당히 겨뤄 시즌 1위에 올랐다. 성 회장은 2024년 KATA 동호인 대회 베테랑부(만 55세 이상) 시즌 1위를 확정했다. 남양주 명문 클럽 소속의 성 회장은 시즌 랭킹 포인트 1943점을 뒀다. 탁구 선수 출신인 성 회장은 테니스에 입문해 약 160회 우승을 이뤘다. 오픈부와 베테랑부 등 12년 랭킹 1위를 차지했다. 그는 30대 후반 테니스를 만난 후 한 걸만을 걸었다. 왼손잡이 포핸드의 각도 깊은 공격과 공중으로 볼을 띄우는 로브 기술이 일품이다. 스윙과 스텝이 한 60대 초반 정도의 기량을 유지하는 것 같다.

비결은 테니스 입문 이후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는 철저한 훈련과 자기 관리였다. 매일 6시 30분에 일어나 20분을 걷고 300번 스윙 훈련을 한다.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는다. 늘 8시간 이상 수면과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기며 건강을 유지했다. 성 회장은 1995년 텔런트 신종식 KATA 명예회장,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 당선인과 KATA를 설립했다. 남자부는 만 25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에 따라 청년부, 장년부, 베테랑부로, 여자부는 개나리부와 교수들이 모이는 국화부로 나뉜다. 2004년부터 KATA 수장을 맡은 성 회장은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매년 1억 원의 장학금을 유망주들을 위해 기탁하고, 해외를 방문해 교포들과 친선 대회를 열고 있다. 물로물로 삼고 싶은 70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